

2026년 '꿈의 극단 종로' 신규 단원 심사 총평

1. 심의 총평

안녕하세요, '꿈의 극단 종로' 예술감독 남인우입니다.

먼저 소중한 자녀와 함께 저희 꿈의 극단 종로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오디션은 어느덧 2년 차를 맞이하는 '꿈의 극단 종로'를 준비하며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과정은 어린이들의 예술적 기량이나 연기 실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차를 함께해 온 기존 단원들과 어울려 즐겁게 협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 활동 속에서 어린이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어떻게 발견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더불어,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참여자들의 다양한 환경적 배경을 고루 반영하고자 깊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보호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에게 결과에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오디션은 '잘하고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꼭 설명해 주세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몸을 움직였던 '도전의 과정'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었는지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꿈의 극단 종로'의 모든 예술가 교사들은 그날 낯선 환경에서도 용기 있게 몸과 마음을 열어준 어린이들의 반짝이는 순간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모든 도전이 단순히 성취나 실패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복한 밑거름이자 즐거운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꿈의 극단 종로 예술감독 남인우 올림